

목포 내항, 크루즈부두 개발 '본격화'

4차 항만계획 반영...설계 착수 폭 60m·길이 230m 바다 매립 을 사업비 20억2800만원 투입



목포시는 목포수협 이전 부지를 연안크루즈선 등이 접안할 수 있는 여객 부두로 개발한다.

목포수협 이전부지가 연안크루즈선 등이 접안할 수 있는 여객부두로 개발된다.

29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는 목포수협 공판장 등이 올해 내 북항으로 옮겨 이전부지에 연안크루즈선 등 비후한 국내 여객선 접안과 국제 카페리부두 증설을 추진한다. 수협공판 이전으로 우려되는 선장 일대 공동화에 대비한 사업이다.

목포시는 정부의 제4차 항만기본계획(2021~2030년)에 이같은 사업계획의 반영을 요구, 1선석 증설이 받아들여졌다.

올해 전체 사업비 480억원 중 20억2800만원이 반영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이달 초 실시설계에 들어갔다.

항만기본계획은 수협 이전부지 일대 바다 쪽으로 폭 60m, 길이 230m를 매립해 연안크루즈 및 국내 대형여객선 접안을 위한 1선석을 조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3차 항만재개발계획(2021~2030년)에 따라 수협 이전부지 육지부는 배후지 개발 시너지 효과를 확대할 수 있도록 소규모 핵심자족시설을 도입해 지역생활 문화거점으로 조성한다.

수협 이전부지 도로변 쪽은 여객터미널 이용자를 위한 지원기능 활성화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상업 및 판매시설을 배치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한다.

기존보다 60m 이상 바다 쪽으로 떨어진 곳에 선박을 접안하고, 그만큼 물량장을 조성해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마련한다.

또 항만에 정박 중인 선박에 필요한 전기를 육상의 발전소에서 공급하는 설비인 육상전원 공급설비(AMP)를 설치한다. 기존 디젤 발전기를 대체함으로써 송광비치아파트 등 인근 주민들이 우려하는 소음과 매연, 조망권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변 쪽은 시민과 방문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경관조명 시설, 수변공원 및 광장, 수변산책로와 수변휴식공간, 주차장 등이 조성된다.

김중식 목포시장은 "목포 내항은 목포시와 전남도의 역점 관광시책인 목포항을 모항으로 하는 연안크루즈선 운항의 거점이 될 것"이라며 "친수공간과 여객터미널 지원시설 공간을 조성해 원도심 상권 활성화 등 개발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종배 기자 pjb@kwangju.co.kr

무안군, 산림공원 조성 등 녹색사업에 200억 투자

휴양지·가로수 등 14개 사업 추진 "사람과 조화 친환경도시 구축"

무안군은 총 사업비 200억원 규모의 녹색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무안군은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을 위해 올해 산림휴양, 산림조성, 산림보호, 공원녹지 등 14개 분야의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치유숲과 산림욕장 등 산림휴양시설 조성, 숲교육 운영, 실내 정원화 화산백련지 수목원

조성 등 102억원 규모의 산림휴양 사업을 추진한다.

62억원을 투입해 6곳의 도시숲과 도시공원, 소공원을 조성하고 가로수 정비사업도 실시한다.

산림휴양사업과 공원녹지 사업이 완료되면 다양한 산림서비스 제공과 공원녹지 확대로 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을 가꾸고 보호하기 위해 15억원을 투입해 조림 35ha, 벌채 33ha, 숲가꾸기 407ha의 조성사업과 21억원 규모의 산림사방·침식방지, 노거수·보호수 정비, 임도 설치 및 보수 사업을 추진한

다.

경제림 조성 29ha, 친환경 벌채 33ha와 해제면 확충의 사방림 설치, 정계와 현경면 해안 침식방지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김산 군수는 "코로나19로 지쳐있는 군민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산림서비스와 함께 도시숲, 공원 등 접근성 높은 녹색공간을 제공하겠다"며 "올해 추진하는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무안을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생태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영광 물무산 행복숲 '걷기 여행지' 인기

영광 물무산 행복숲이 걷기 여행지로 인기가 있다.

29일 영광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걷기 여행과 트레킹 인구가 크게 늘면서 지자체마다 '걷기 좋은 길'이 등장하고 있다.

이 중 '영광 물무산 행복숲'은 걷기 좋은 편안한 길을 대표한다.

피톤치드가 가득한 물무산 행복숲은 계단과 경사가 없어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걸을 수 있으며, 봄이 오는 길목인 요즘은 진달래와 수선화를 만날 수 있다.

또 발바닥에 닿는 황토의 푸근한 감촉을 느낄 수



영광 물무산 행복숲이 코로나시대 걷기 여행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영광군 제공)

있는 '맨발 황토길', 아이들이 자연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든 '유아숲 체험원', 숲길 곳곳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편백 명

상원'과 '소나무숲 예술원' 등 가족이 함께 걷고 즐길 수 있어 비대면 관광지도 인기가 높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나눔 세상 온정의 손길

해남군·포레스트수목원, 장학기금 기탁 협약

포레스트(4est)수목원은 최근 관광 수익금의 일부를 장학사업기금으로 기탁하기로 해남군과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협약에 따라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유망 관광지로 성장한 포레스트수목원은 입장료 수입의 일정 부분을 적립해 장학기금으로 기탁하고, 해남군은 수목원의 이미지 마케팅을 위한 홍보 지원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역 업체와 장학기금 협약을 맺은 곳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약기간은 올해 말까지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동 연장된다.

해남군 현산면 봉동마을에 있는 포레스트수목원은 6만여평의 숲을 따라 1400여종의 다양한 식물이 자라고 있다. 특히 8000여 그루를 식재한 수국정원은 국내 최대 규모로, 여름 수국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방문해야 할 12개 명품숲과 전



남 언택트 관광 50선, 한국관광공사의 강소형 잠재관광지 육성 사업에 선정됐다.

해남군은 지난 1997년부터 장학사업기금을 조성해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장학금과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혁신교육지구·진로체험·예체능 특기학교 육성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해군 3함대사령부, 서해수호의 날 맞아 사랑의 헌혈

해군 제3함대사령부는 제6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지난 23일부터 사흘간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시행했다. <사진>

대한적십자사광주·전남혈액원과 함께 진행한 이번 헌혈 운동은 사회수호 55층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약하고 국가적 혈액 수급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이번 헌혈 운동은 전 부대원이 참가 대상이었으며 제3군수전대 보급지원대대장 이상민 중령이 50번째 헌혈을 실천해 헌혈유공장(공장)을 받았다.

이 중령은 "평소 꾸준히 헌혈에 참여했는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헌혈이 쉽지 않아 안타까웠다"며



"서해수호의 날에 50번째 헌혈을 하게 돼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목포중앙교회·미래로교회·평안교회, 재난지원금 기부

목포시 부주동에 소재한 목포중앙교회(담임목사 한봉철), 미래로교회(담임목사 정래환), 평안교회(담임목사 김강순)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종교시설 재난지원금을 부주동행정복지센터에 기부했다. <사진>

특히 평안교회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50만원을 더 기부했다. 기부금은 가장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도 성실히 살아가다 지난해 어깨 부상으로 두 차례 수술을 받아야 하는 한 청년의 의료비로 쓰일 예정이다.



이들 교회는 평소에도 쌀과 장학금 등을 기부하는 등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목포=박종배 기자 pjb@kwangju.co.kr

딱 한잔 드셨습니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